

# 월정사 '조직의 맛' 확실하네!

## 연합신도회 이어 3개 단체 추가창립...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내 신도·신행단체 활성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회, 거사팀회, 진부신도회, 불교학생회, 합장단 등의 신도·신행단체와 산내 암자 신도회를 하나로 묶은 연합신도회가 출범한데 이어, 1월 28일 바라밀회(회장 최경철), 대관령 불자회(회장 박제홍), 운전불자회(회장 최진복) 창립법회가 합동으로 봉행됐다.

특히 이 가운데 운전불자회는 먼단위 최초 운전기사 불자모임이고, 대관령 불자회는 황계지역 첫 불자모임이라는 점에서, 월정사가 지역민과 밀착하려는 포교방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신도·신행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단기출가학교 등으로 월정사 대내외 인지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월정사가 지난해부터 지역 청소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수청소년회'를 발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심사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창립법회를 봉행한 세 단체는 곧 연합신도회 산하로 소속될 전망이다. 개별 활동 보다는 연합신도회 산하에서 다른 신도·신행단체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다. 연합신도회는 봉축행사를 비롯해 월정사 각종 행사에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교구 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월정사도 신도·신행단체 활성화를 수행, 포교, 문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수행종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올 5월 고승초청참선법회와 철야오공정진을 진행하고, 6월까지 신도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해 말사에 보급한다. 불교대학을 운



월정사의 바라밀회·대관령 불자회·운전 불자회의 창립법회 후 기념촬영 모습. 지난해 연합신도회를 출범시켰던 월정사는 이번 신행회 결성으로 탄탄한 지역포교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영해 신도교육을 강화하고, 소식지 <오대산 향기>와 VMS(음성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4월 신도단체 성지순례와 6·10월 신도단체 화합 한마당 및 교구 합장단 연합

발표회 등 신도회 친선과 화합도 도모한다. 월정사 박재현 중무실장은 "매월 연합신도회 합동 법회를 개최하는 등 법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포교바람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지리산 9개 사찰

###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전남도가 지리산권 사찰을 묶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1월 31일 도청에서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 전문위원, 구례 곡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지리산 지역의 사찰들을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재청 관계

자로부터 세계 문화유산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할 사찰로는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실상사 등 지리산내에 소재한 9개 사찰이며 빠르면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현 전남 문화재위원은 "지리산권 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이미 1999년부터 건의되었다"며 "이날 등재 사찰 범위와 조사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 대웅전 초석돌 발견

#### 제주원당사터, 규모 파악 '열쇠'

제주 원당사터에서 대웅전 기둥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이는 초석돌이 발견됐다. 제주시는 원당사터 발굴조사에서 대웅전 초석과 주변에 산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갈과 제단 등을 발굴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대웅전 초석은 원당사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원당사는 고려시대 건립된 제주의 대표적 사찰로, 현재 원당사터에는 1914년 증건한 불탑사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남아있는 원당사터 오층석탑은 제주도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불탑이자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현무암 불탑으로 제주불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원당사터 발굴 담당자인 제주시청 함우혁씨는 "정확한 것은 정밀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면서 "오층석탑 바로 인근 북쪽에서 발굴된 초석은 탑 주변에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는 사찰 구조로 봐서 대웅전 초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당사터 발굴조사에서는 회랑건물 및 요사채가 확인됐으며, 원당사가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조선초기 백자류와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한명우 기자

### 마애삼존불 보수·복원

#### 서산시, 개심사 영산탱 등도

지난해 12월 확정된 내포(內浦)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서산시가 내포문화권의 최고문화재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 등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복원에 들어간다.

서산시는 서산마애삼존불, 개심사 영산회괘불탱화, 보원사지 석조와 당간지주, 법인국사 보승탑비 등에 대한 보수·복원에 나선다고 1월 28일 밝혔다.

시는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의 경우 안전진단과 주변 정비 위해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이 묘사된 개심사 영산회괘불탱화(보물 제1264호)는 6천만 원을 들여 부분 보수와 보존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 보원사지 터에 있는 석조(보물 제102호)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법인국사 보승탑비(보물 제106호) 등도 1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망일사, 천장사, 간월암 등이 보유하고 있는 13건의 문화재를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포문화권은 서산과 예산 경계에 남북으로 뻗은 가야산 주변지역으로, 서산 마애삼존불 등이 산재해 있어 불교문화유적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 북한산 승가사

## 스님·신도 '정진코드' 통일



북한산 승가사 직목당에서 참선수행중인 비구니 스님들. 승가사는 24시간 죽비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행·기도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굽이굽이 바위 사잇길을 오르코 또 오르니, 산하리의 선각(禪閣)이 단풍 속에 자리 잡았네' 다산 정약옹이 가을 승가사를 보며 읊은 시다.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 북한산이라면, 북한산을 대표하는 사찰은 승가사다.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승가사는 해발 580m의 서울 북한산산봉에 자리 잡고 있는 주변 경관이 빼어난 사찰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절경 속에 위치한 까닭에 왕들과 문인들이 자주 찾았다고 한다. 보물 제215호 마애석가여래 화상과 보물 제1000호 석조승가대사

하는 스님들로 구도열이 식을 줄 모른다. 다른 법당에서는 철야정진하는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법당은 24시간 개방된다. 대웅전, 명부전, 석굴각 등에는 담당 스님이 있어 신도들의 수행을 돕는다. 승가사에서 절과 해제가 따로 없다. 사시사철 죽비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 승가사가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은 용인에 건립 중인 법륜사 불사다.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선방을 짓겠다는 상륜 스님의 발원으로 10년 전에 시작됐다. 그리고 오는 10월 마침내 선방을 개원하게 된다. 대웅전

### 1년 내내 선방과 법당에 수행열기 가득

### 30년 불사로 '북한산 대표사찰' 자리매김

상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25m 높이의 '호국대보탑'이 인상적이다.

승가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상륜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다. 상륜 스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불사에 매달렸다. 대웅전, 영산전, 적묵당, 명부전, 일주문, 종각 등을 신축 또는 중창하면서 승가사의 옛 면모를 갖춰나갔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수행도량이자 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동안가가 한창 진행 중인 2005년 1월 승가사의 선방(적묵당)에서는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옹양정진하고 있다. 산월이 돼도 적묵당은 수행

등 전체적인 불사가 마무리되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선방 개원만으로도 의미는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법륜사에 보살선방도 마련하고 복지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부처님 가피 아래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요. 하지만 지금 선방과 법당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주지 상륜 스님은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대중들이 승가사의 '힘'이라고 말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찾아오듯 수행분위기가 갖춰진 승가사에 구도열정을 가진 대중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 승가사에는 오늘도 바로 그 '힘'으로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02)379-2996

한명우 기자

충남 공주 계룡산 감사의 전통문화행사인 괴목대신제가 2월 11일 열린다. 올해 괴목대신제는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치러지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발달해왔다.

괴목대신제는 갑사 앞에 있는 1600년 된 괴목 앞에서 마을의 안

### '판' 커지는 감사 괴목대신제... 11일 정오 열려

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로, 약 300여 년 전부터 1960년대 초까지 행해져오다가 끊긴 이후 2000년 다시 복원돼 문화축제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낮 12시 괴목대신제를 시작으로 장승제 등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후 마을주민과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된다.

놀이마당은 어린이 부호대회와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와 이어 풍물시연, 대중가수 및 국악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의 축제

마당이 펼쳐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참가예상인원은 4천여 명. 현재 감사 인근 속박업소는 축제를 보기 위해 모여든 전국

의 관광객들로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태다. 괴목대신제가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감사의 노력 때문이다.

감사는 공주산성, 무열왕릉, 공주박물관 등 인근 관광지 및 휴식처를 안내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또한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행운권을 추첨해 푸짐한 상품도 증정한다.

감사 주지 장곡 스님은 "괴목대신제를 전국 최고의 문화행사로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041)857-8981

한명우 기자

## 재충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 수강생 모집

#### 불교문화 분야

- ◆ 사찰 기초의식 습과과정
- ◆ 법패·무용 실기과정
- ◆ 불교조각·불화 실기
- ◆ 불전기초·대승경전연구

#### 사주명리 분야

- ◆ 사주명리 초급·고급과정
- ◆ 주역과 현대생활 응용
- ◆ 점성술·복서육효 응용
- ◆ 육임·기문둔갑 미래 예측

#### 주책풍수감정법 천명사주감정법

**교재 최초 공개!**  
**저자직강 노병환 교수**

- ◆ 모집정원: 각 과정 30명
- ◆ 수강료: 각 과정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 교육기간: 18주 (기초 5주 / 실전 13주)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 1. 10 ~ 2. 25**

- ◆ 수강대상: - 남·여,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 교육기간: - 2005년 3월 첫 주부터(16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 접수방법: - 정수방/접수 -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서화예술 분야

- ◆ 서예(한문·한글) 실기
- ◆ 전각 예술 실기
- ◆ 문인화·수묵화 실기
- ◆ 율절화·채묵화 실기
- ◆ 도판(도자기 서예) 실기
- ◆ 서·화론 선택 과정

#### 생활풍수 분야

- ◆ 생활에 응용되는 풍수
- ◆ 인테리어와 풍수응용
- ◆ 주거설계와 풍수응용
- ◆ 풍수를 통한 부동산 전략

#### 자연치유 분야

- ◆ 사주학을 통한 한방 연구
- ◆ 대체의학을 통한 자연치유
- ◆ 기공을 통한 건강생활
- ◆ 전래 한방비전 연구

#### 외국어 회화 분야

- ◆ 중국어 회화
- ◆ 일본어 회화
- ◆ 한문 사서

성취감을 느껴 보실 분은 우리 홈페이지로 오세요

[www.dongbang.ac.kr](http://www.dongbang.ac.kr) 문의전화: (02)745-2141

## 전통있는 불교교육의 최고 명문학당

# 부산 불교교육대학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고시에서 전국 최다 포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불교교육의 명문 학당인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 2005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

구분	제25기 교리반(6개월)	제15기 불교학과(1년)	경전연구과정(2년)	제16기 수화반(1년)
교육내용	사찰예절, 교리, 문화, 역사	불교 교육에 필요한 18과목 수학	2년동안 경전 4과목 수학	기초 및 불교전문 수화
교육일자	주간: 매주 화 오후 2시~4시 야간: 매주 화 오후 7시~9시	야간: 매주 목·금 오후 7시~9시	매주 수 오후 7시~9시	매주 목 오후 7시~9시
등록금	입학금: 40,000원(교재제공)	입학금: 60,000원(교재제공)	입학금: 60,000원(교재비 별도)	입학금: 20,000원(교재 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수업료: 월 60,000원	수업료: 월 40,000원	수업료: 월 10,000원
자격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분	불교초교리 이수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본 대학 불교학과를 수료한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원서접수	2005년 1월 10일 ~ 3월 10일까지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식	2005년 3월 10일 오후 4시			
문의처	본 대학 교무실 051)867-9944, 9946(부산시청 옆 부산불교회관 5층)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 부산불교교육대학